

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파견국가	필리핀	파견도시	수빅
파견대학	바탄반도주립대학	기간	2018.12.24. ~ 2019.1.17.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대학교가 아닌 어학원으로 기숙사와 수업 듣는 교실이 한 건물에 있고, 건물은 시내로부터 차타고 10분~15분 걸리는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.
수업	첫 날 도착하자마자 레벨 테스트를 보고,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교재와 반을 나눕니다. 8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 시간씩 수업을 하며 중간에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. 4시간은 그룹수업, 4시간은 1대1 수업으로 진행됩니다. 그룹 수업은 토익 스피킹, MMC(영상제작)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있으며, 1대1수업은 보카와 리딩 수업으로 구성됩니다. 수업은 큰 부담 없이 재밌게 들을 수 있으며 숙제는 거의 없는 편이고 있다고 해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.
Activity	수빅투어, 클락 쇼핑몰, 요트투어, 화이트코랄리조트 총 4개의 액티비티를 했습니다. 수빅투어는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진행이 됐고 그룹별로 이동을 합니다. 수빅 투어 때 시내와 수빅베이를 돌아다니는데 이때 시내의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클락 쇼핑몰은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 규모가 꽤 큰 쇼핑몰이었습니다. 요트투어는 한 요트에 대략 20~25명이 탑승을 하게 되며 자연 경관이 멋있고 바다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. 화이트코랄리조트는 예뻐서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. 이곳에서 식비와 바나나보트, 스노쿨링은 개인 경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우기가 끝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 올 시기답게 심하게 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. 반팔과 얇은 긴팔을 입기에 적당했습니다.

안전	처음엔 필리핀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, 돌아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. 수빅은 치안 유지가 잘 되어있는 도시라고 하며, 쇼핑몰 입구에서도 가드들이 몸과 가방을 하나하나 수색합니다.
숙소	학교기숙사(v) 홈스테이() 외부 숙소() 기타() 기숙사 방은 3명 당 한 방을 썼는데, 에어컨, 개인 장롱, 침대, 화장실, 냉장고가 갖춰져 있고 엄청 좋진 않지만 지낼 만 했습니다. 처음엔 에어컨 소리가 좀 크고, 산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 벌레가 좀 있는데 곧 익숙해졌습니다. 기숙사에 수영장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식사	학교식당(v) 홈스테이 () 외부식당 () 기타() 3끼 모두 제공해주고, 한식으로 나오며 맛도 괜찮습니다. 수업이 끝난 후 저녁은 대부분 나가서 먹었습니다.
교통	시내까지 15분 정도가 걸리며 주로 FB와 택시를 이용했습니다. FB는 14페소 정도로 숙소 앞에서 기다리면 오고, 너무 안온다 싶으면 10~15분 정도 걸어 내려가서 도로로 가시면 잡아서 탈 수 있습니다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 유학허가증(SSP)		출국 전 사전 납부
환전	약44만원	400\$ (식비, 기념품, 쇼핑, 출국세 등등)
합계	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졸업식이 다가올 때 선생님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, 필리핀에서는 구하기 힘든 한국의 전통적인 물건이나 고유한 것들을 미리 선물로 준비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

필리핀에서 날씨가 제일 좋은 시기이기 하지만 덥습니다. 휴대용 선풍기 챙기세요 !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처음엔 필리핀은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고, 타지에서 한 달을 지내려고 하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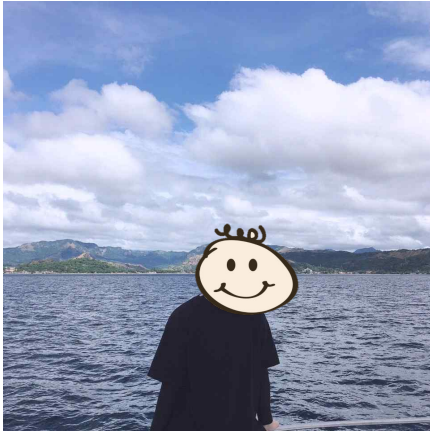
필리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통카드나 결제 시스템이 발달 되지 않아서 처음엔 답답함을 느꼈지만 오히려 이런 점에서 여유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미세먼지로 뒤덮힌 우리나라의 하늘과 달리 필리핀에서는 많은 별이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.

영어를 완벽히 마스터하기에 한 달은 분명 짧지만, 매일 8시간씩 영어를 사용하다보니 자신감 향상에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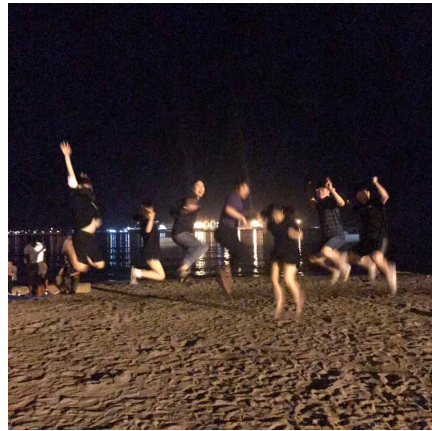
처음엔 영어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했지만, 그것 이상의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Fun Friday	Teacher's Birthday



Yacht tour



In Subic bay



With teachers



MMC Festival (With T.Ace)